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전주시, 중앙·풍남·노송동 대상... 고물자골목·사회주택·부동산신탁 협동조합 등 전개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술'을 매개로 한 상인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수공예 작가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수(手)놀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전주시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해 아시아의 문화심장으로 키워 전주가 파리나 로마와 같은 위대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구도심 일원 약 1.43㎢(43만2575평)에 오는 2020년까지 총

182억원을 투입하는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 이후에도 민간 주도로 삶의 질을 바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의 대표사업은 △원도심 축제학교 △술대모임 공동체 사업 지원 △고물자골목 재생사업 지원 △사회주택 △부동산신탁 협동조합 △한 수(手) 배워볼까 △어메니티(쾌적성, 도시미) 프로젝트 등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원도심 축제학교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의 기획

과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주민들이 직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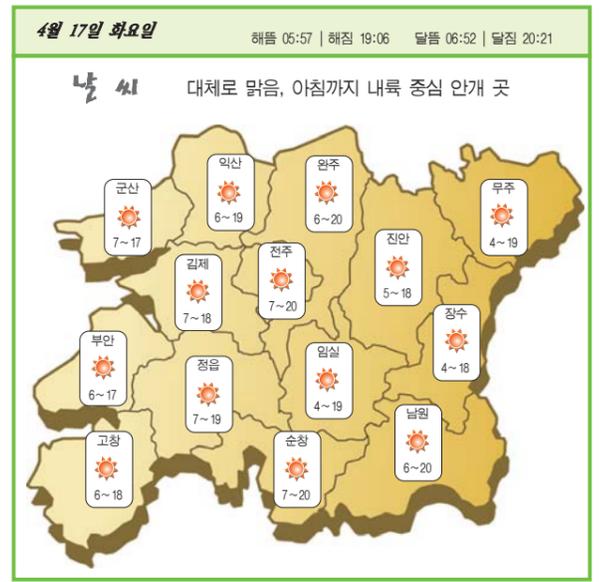
특히, 시는 노후된 원도심을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메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술을 취급하는 원도심 술집과 카페, 밥집 주인장들과 원도심에 일반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술 문화를 들여다보고 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은방골목이 형성됐던 전주의 옛길이자, 해방 이후 구호물자(구호물자)골목 주민들은

골목환경과 외관 정비, 소규모 갤러리나 공방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전통공예와 관련된 공방 등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고물자골목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교실에 참여하게 된다. 또, 골목장인 15명의 인터뷰와 과거와 현재의 인쇄물을 기록하는 사업도 전개된다.

이밖에, 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3층의 공실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주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사회주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동산신탁 협동조합'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프로젝트인 '한 수 배워볼까' 등도 전개한다. /김민근 기자



정용섭 명예교수, 전북대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내 인생의 전부였던 대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전북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다 올 2월 정년퇴임한 정용섭 명예교수(식품공학과)가 대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정 명예교수가 기금을 기탁한 것은 평생 몸담았던 대학과 학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평소 생각이 실천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 기금을 전북대가 가장 한국적 캠퍼스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와·현수 캠페인'과 식품공학과 발전을 위해 지정 기탁

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길 바란다. 정 교수는 "현와·현수 캠페인' 추진 초기에도 100만 원 상당의 노력 나무 한 그루를 기증했다. 정 교수는 "이번에 정년을 맞아 내 평생을 보낸 대학과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금 기탁을 마음먹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기금으로 우리대학이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장은 16일 오후 2시 정용섭 명예교수를 대학에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전달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시, PLS 전면시행 대비 교육·홍보 추진

전주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고 나섰다.

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시행에 따른 농약 현장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농약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는 수입 및 국내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경과잔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잔류농약 검사 결과 마다 농약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농산물의 전량 폐기와 출하연기 등 영세 농가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업인 1,30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왔다. 또,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힘써왔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가상현실(VR) 기반 안전체험관이 16일 개관했다. 사진은 지진 체험

고창 폐교 활용 '가상현실 안전체험관' 개관

재난안전·교통안전·응급처치·소방·지진·방사능 교육 등 체험

전북교육청이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가상현실(VR) 기반 안전체험관이 16일 개관했다.

이 안전체험관은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삼인종합학습장(구 삼인초등학교) 시설 중 일부를 활용하여 가상현실(VR) 재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소방, 지진, 방사능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상현실 재난안전 체험은 실제 겪

어보기 힘든 재난 상황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가상현실로 표현하여 재난을 체험하고 재난발생 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상현실(VR) 체험은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여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고, 교통안전 체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충돌,

전복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실습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방사능 누출에 따른 피폭 피해와 누출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소규모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이삼민 기자

“라돈 초과 학교 저감대책 마련하라”

김승환 교육감 “성분분석 등 종합대책 세우라” 지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6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도내 학교들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을 주무과에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측정된 학교 실내공기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8개 초·중·고교, 도내에서는 19개 학교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화장실 지반대에 위치해 있거나 교실 바닥이 목재 재질인 학교에

서 상대적으로 고농도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해당 학교에 우선적으로 라돈 저감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 지반에서 나온 흙, 돌 등에서도 라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급적 화장실 지반에서 나온 자재들이 학교 건축자재로 쓰이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성분분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설과, 인성건강과, 정책공보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지역사회와 교육가족들에게 발표하기로 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